

가나이(金井愛明) 목사님에 대한 회고¹⁾

최정석(일본선교사, 니시나리교회)

오늘은 제게 있어서 사마리아이기도 하셨던 가나이 목사님을 회고하고 싶습니다. 지난 번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의 만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가나이 목사님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과 한국인으로서 갇아야 할 은혜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육신으로 만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 목사님을 마음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나이 목사님께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저는 매번 다른 내용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성서의 복음서는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입니다만 모두 예수님을 각자의 시각에서 어떤 사람들이 입을 것인지 생각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기록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고, 누가복음서는 이방인을 포함한

1) 이 글은 2007년 11월 12일 가나이 목사가 소천한 후 최정석 목사가 11월 25일에 니시나리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 회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에서 방문한 목사들에게 가나이목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정석 선교사

모든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마태와 같이 목사님이 오랜 시간 함께 하셨던 니시나리 교회와 가족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누가의 입장에서 본 가나이 목사님을 교회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마가사키와 또한 본인이 약한 자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셨던 삶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번 예배 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니시나리 교회에서 처음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18년 전 1989년 2월,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 장로님을 통해 목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병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신 이후 연세가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쓰러지시고 7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마도 젊은 나이의 목사님이셨다면 저의 아버님과 오버랩되어서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젊은 혈기보다는 병으로 인해 오히려 더 깊은 인간 이해를 하고 계셨기에 저로서는 아주 좋은 시기에 목사님을 만난 셈입니다.

소개하신 분의 말씀으로는 일본에 이리이러한 목사가 있는데 만나 보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마가사키라는 노동자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오래 사시는 목사님이요 한국인들을 많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일본이 두 번째 방문이었고 일본에 대한 관심보다는 소개받은 그 목사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였는데 방문을 한 곳이 바로 니시나리 교회였습니다. 당시 저 역시 신학교 4학년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아버님 몰래 다니던 것이었고 결혼 후에도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가나이 목사님을 만나면 뭔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혼자 처음 오사카를 방문하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5세였습니다.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역시 다나카 쇼죠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마가사키에서 목회자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마가사키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의 목사님은 유명하셨지만 지금은 무명의 길을 걸어가며, 더 좁은 길로, 더 낮은 길로, 걸어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1990년 여름에 서울에 오셔서 가족이 함께 만났습니다. 마츠무라 상과 후쿠다 상이 함께 왔었고 아들 일선이가 한 살이었습니다. 목사님 일행은 약 일주일 가량 휴가를 끝내고 일본으로 가시고 그 이후 소식이 한 동안 끊어졌습니다.

저희는 다음해 1992년 3월에 이쿠노에 있는 오사카 한인교회에서 목계 되었습니다. 가나이 목사님께 혹시나 해서 연락을 드리니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데리고 이코이식당으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듣고 보니 저희를 소개해 주었던 분들과 연락이 끊어져서 그 동안 연락이 안되어 궁금하셨다는 말씀과 저희들이 일본에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자 선뜻 가마가사키로 오라는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신학교에 원서를 넣어본 것이 입학이 되어 저희 가족은 약 3년간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가나이 목사님과 식당에서의 3년간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약 2주간 함께 생활하며 식당 일을 하였고 다키다시하는 것과 바자와 밤 순찰을 함께 하였습니다. 보름 후에는 비자 만료기간이어서 한국으로 돌아가 일을 하면서 일선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안 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 이후 선교사들과의 교류와 함께 생활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마가사키와 교회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나는 주말에는 특히 가까운 교오토, 나라, 고오베에 함께 물건을 실으러 가거나 좋아하시는 사찰에 가서 목상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온천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게는 목사님이 사마리안이 되어주셨고 저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과는 별로 대화한 적이 없고 아직도 함께 있는 시간이 서먹하기만 합니다만 가나이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걸어오신 분이요 아버님은 일본어를 잘 하지만 일본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일본어가 서툴고 언제나 통역에 의지하고 모두가 저에게 일본어 못한다고 구박을 하면 목사님은 미국 유학가서 일본어가 더 늘어서 돌아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편을 들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내가 목사님께 제가 없는 동안 저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 늘 남편의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제가 아직 해고당하지 않고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가족들 앞에서는 말씀 안하셨겠지만 저희에게는 가족 덕분에 또 니시나리 교회 교인들 덕분에 가마가사키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마가사키에 사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이별했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코이집 또는 데아이의 집, 후루사토의 집 등... 집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가나이 목사님이라 들었습니다. 가마가사키 대학이라고 자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가마가사키에서 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가나이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의 목사님은 가마가사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즉 삶을 공유하는 것과 죽음을 공유하는 것과 가마가사키뿐 아니라 니시나리로 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배우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목사님의 설교는 1992년 봄, 부산으로 요시노 상과 고미 상이 함께 나오셨을 때입니다. 오늘 이웃에 대한 본문으로 말씀 하셨는데, 가마가사키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 해 행로병사하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더 테레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보살피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진 것에 상관없이 가장 원하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당신도 그런 이웃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1993년에는 지금은 유명해진 한국의 젊은 최일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설교가 아니라 밥을 먹기 위해 줄 선 사람들 맨 마지막에 줄을 서서 기다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무명의 그 젊은 목사에게 유명해지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 함께 아픈 이들 약한 사람들과 삶과 죽음을 공유하는 것, 아픔을 공감하는 것,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매년 한국을 찾아와 주셨는데 큰 교회대신 주로 탄광촌이나 일제시대의 지하노동 강제 수용소가 기도원이 된 곳이라던지

한국의 기도원과 수도원 예수원 등을 방문하셨습니다. 서울의 제 누님교회에 오신 적도 있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집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태어난 고향 목포의 교회에 가셨을 때는 요시노 상이 함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시노 상은 목사님께 니시나리에서 듣던 설교보다 알기 쉽고 훨씬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 강단에 올라가셔서 일본인으로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해 먼저 사죄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한국교인들은 목사님의 그 첫 한마디 인사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가지든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셨고, 그 기도회에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모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으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숫자가 많지만 교통사고는 세계 제일이고 질서없기로는 제일이지만 그 배후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뿌리가 아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3년 있다가 1995년에 한국으로 들어왔고 2001년 여름에 다시 일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2001년과 2002년에 함께 한국에 갔습니다. 2001년에는 부산으로 들어가서 경주와 안동을 둘러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강원도의 시골교회에 가셨고, 2002년에는 꼭 제암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싶다 하셔서 함께 갔습니다. 그곳은 일본인들이 제암리교회에 동네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한 곳인데 그에 대해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정신과 의사이신 김진 선생님의 안내로 방문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에 대해 또는 아시아에 대한 일본이 마치 당신이 한 것처럼 그 책임을 일본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피해자이기에 가해자인 일본이 사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에서 한국인, 조선인 차별이 있는 것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오고 난 이후 한류붐이 일어나서 교류가 있게 된 것을 반겨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일본인이거나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신앙인으로서 한국에서 온 것에 대한 의미와 가마가사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오히려 폐를 끼치지 않는지 우려가 되었지만 목사님께서서는 흔쾌히 받아주시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저희가 익숙해지는 약 3년간 식당 2층에서 매일 아침 함께 기도회를 가졌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가장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또는 가마가사키와 니시나리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마리안으로서 언제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교인들이 그런 자신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떠나셨지만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은 저희들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목사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에 목사님의 정신과 신앙의 길이 새겨져서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을 통한 만남과 교제는 이어질 것입니다. 이별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이별이며 오히려 이제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원히 목사님을 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저희들에게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목사님은 가셨지만 아마도 각자에게 새겨진 목사님의 정신이나 삶의 방향은 저희 인생과 신앙에 영향을 여전히 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이지 목사님이 해 주셨는데 저희야말로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게 사마리안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❷